



“6월 13일은 투표하는 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 경기에 앞서 6·13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연합뉴스

#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후보 속속 확정

## ■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구	민주당	평화당
목포	보류	박홍률
여수	김유화·권세도·주철현·권오봉	
순천	허석·조종훈	이창용
나주	강인규·이상계·이용범	김대동
광양	김재무	
담양	최화삼·최형식·박근조	
장성	윤시석	
곡성	유근기	
구례	김순호·최성현·이창호	박인환
고흥	공영민	송귀근
장흥	김철우	
화순	구중곤	임호경
장흥	박병동·김성	
강진	강진희·이승욱	곽영채
완도	신우철	
해남	이길운·김석원·윤재갑	명현관
진도	이동진·박인환·주선중	
영암	전동평	
무안	정영덕·홍금표·김산	
영광	김준성	
함평	김성호·김성모·박래옥	이윤행
신안	보류	

민주, 광양시장 등 9명 단수 추천·나주 등 7곳 3파전·목포와 신안 유보...평화, 전원 단수 공천

고흥군수 공영민 대 송귀근, 화순군수 구중곤 대 임호경...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9명 사실상 공천=민주당 전남도당은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단수 추천 후보자 9명을 확정, 사실상 공천장을 줬다. 또 11개 시·군 경선 후보자 31명도 확정했다. 다만, 목포시장과 신안군수는 경선 후보자와 일정 등이 보류됐다. 단수 추천 후보자는 광양시장에 김재무 전 전남도의회의장, 보성군수에 김철우 전 보성군의회의장, 고흥군수에 공영민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성군수에 윤시석 전남도의원 등이다. 또 현직 군수인 신우철 완도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구중곤 화순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등도 단수 추천돼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다.

컷오프를 거쳐 경선에 나설 후보자는 11개 시·군에서 31명이다. 경선 주자는 순천시장 허석·조종훈, 장흥군수 박병동·김성, 강진군수 강진희·이승욱 등 3곳은 맞

대결을 펼친다.

나주시장 강인규·이상계·이용범, 담양군수 최화삼·최형식·박근조, 함평군수 김성호·김성모·박래옥, 구례군수 김순호·최성현·이창호, 해남군수 이길운·김석원·윤재갑, 진도군수 이동진·박인환·주선중, 무안군수 정영덕·홍금표·김산 등 7곳은 3파전이다.

여수시장은 김유화·권세도·주철현·권오봉 등 4명이 치열한 경선전을 치르게 된다. 이들의 경선은 20일부터 26일 사이 실시된다. 경선은 일반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 투표 50%를 합산해 결정된다.

목포시장과 신안군수는 경선 후보자·일정이 보류됐다. 민주당 중앙당이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전남도당에 경선 일정 등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신안군수 후보 중 가장 유력했던 박우량 전 군수를 경선 대상에서 배제한데 이어 경선 후보 발표마저 보류되자 전략공천설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신안군수에 천경배 당 대표실 부실장이, 목포시장에 배용태 전 전남부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평화, 시장·군수 후보 9명 확정=민주평화당은 전남지역 시장·군수 후보자를 3차례에 걸쳐 확정, 발표했다.

지난 13일 발표한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순천시장에 이창용 전 순천시의원, 나주시장에 김대동 전 시장이 결정됐다.

평화당은 앞서 목포시장에 박홍률 현 시장, 해남군수에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의장, 화순군수에 임호경 전 군수, 함평군수에 이윤행 함평군의회의장, 고흥군수 후보에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강진군수에 곽영채 전 전남도의원, 구례군수에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의장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화당 시장·군수 후보 확정자는 9명으로 늘었다.

이용주 평화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추가로 공천자를 확정하고 16일경 경선 지역 확정과 함께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경선 후보 탈락자 반발 “재심·무소속 출마”

경선 후보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15일 민주당 전남도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 전 신안군수가 지난 13일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군수는 이날 신안군 압해읍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감스럽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소속으로 신안군수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안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중앙당으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문제인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적 지방분권”이라며 무소속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군수는 최근 민주당에 입당해 전남도당 공직 후보 자격심사 등에 대비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군수의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경선에서 배제했다. 당내 공천을 무력하게 한 후보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이었던 박 전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았으나 돌연 사퇴하고 탈당했다.

시장·군수 경선 후보 탈락 예비후보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김수공 장성군수 예비후보와 김연일 영암군수 예비후보, 이동권 영광군수 예비후보 등 9명이 재심신청을 한 상태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단체장 경선 신청자가 2~3명에 불과한 지역으로, 컷오프 없이 바로 경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김수공 장성군수 예비후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단수 후보 확정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며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제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들은 “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민주당은 공정한 깨끗한 경선을 바라는 광주시민과 당원의 바람에 응해야 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후보가 불법유출된 명부를 다시 활용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중앙당은 한 차례의 불법도 모라자 또 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시장 경선전을 치르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뒤 경선을 하라”고 요청했다.

강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당원명부 불법유출 관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로 자신들을 고발했던 권리당원들과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100여명 등에게 지난 14일 이 후보 명의의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용섭 후보 측이 또다시 이전 명부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지지문자를 발송

## ‘미니총선’ 된 국회의원 재보선

광주 서구갑·서울 노원병 등 전국 10여곳 ‘민심 풍향계’  
與 승리엔 정국 운영 탄력...패배 땀 원내 1당 바뀔수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판이 점점 커지면서 ‘미니총선’을 방불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승리할 경우 여권의 정국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야당이 승리하면 원내 1당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15일 기준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곳은 광주 서구갑과 영암·무안·신안군,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등 7곳이다. 여기에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현역들이 나오면서 재보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의원이 나서게 되면서 경남 김해을이, 또 충남지사 후보로 양승조 의원이 선출되면서 충남 천안병이 보선 지역으로 각각 추가됐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이철우 의원이 경북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이 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여기에다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서울 울진에 도전장을 낸 박영선·우상호

의원과 경기지사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 인천시장 예비후보로 나선 박남춘 의원 등 4명이 아직 경선을 치르고 있어 결과에 따라 보선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소 10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벌써 사활을 건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 서구갑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박해자 전 국회의원과 송갑석 노무현 재단 광주 운영위원이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권애영 전남도의원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평화당에선 김명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출마를 선언했고 홍훈희 변호사가 16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영암·무안·신안은 민주당의 경우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백재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경선을 기다리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이운석 전 국회의원 등이 출마의사를 보였고 한국당에선 주영순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이용섭, 불법유출 명부로 또 문자 발송”

강기정, 중앙당에 이 후보 자격박탈 촉구 진정서  
이용섭 “시민·당원 제공 명단...법적 문제 없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 측이 또다시 같은 명부를 활용, 문자를 불법발송했다”며 중앙당에 이 후보의 자격박탈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5일 “당원명부 불법유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 측이 또다시 같은 명부를 활용, 문자를 불법발송했다”며 중앙당에 이 후보의 자격박탈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후보가 불법유출된 명부를 다시 활용해 문자를 발송했다”며 “중앙당은 한 차례의 불법도 모라자 또 다시 부정한 방법으로 광주시장 경선전을 치르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 뒤 경선을 하라”고 요청했다.

강 후보 측은 “이 후보 측이 당원명부 불법유출 관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로 자신들을 고발했던 권리당원들과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100여명 등에게 지난 14일 이 후보 명의의 문자를 다시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양향자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용섭 후보 측이 또다시 이전 명부를 활용해 무차별적으로 지지문자를 발송

하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당에서 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민주당은 공정한 깨끗한 경선을 바라는 광주시민과 당원의 바람에 응해야 한다”며 “이를 묵인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섭 후보 측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용섭 예비후보 경선대책위원회는 이날 이병훈 공동선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시민과 당원이 제공한 지원 명단을 취합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47만명의 시민과 당원에게 보낸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선거활동인데도 이를 트집 잡아 이 후보를 흠집 내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네거티브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으로 접찰될 경우 광주 시민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겠는가”라면서 “정확선거를 해야 한다. 광주 시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광복기자 kroh@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